

2020. 3. 28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0년 3월 2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I · SEOUL · U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3매

처장	이수영	2290-4610
팀장	엄대중	2290-4611
담당자	권흥근	2290-4614
관련홈페이지	www.sisul.or.kr	

서울시설공단 따릉이 거치대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

- '2020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' 에서 출품작 중 1%에 해당하는 그랜드 프라이즈 수상
- 안전성 및 편리성 인정받아 '산업 디자인' 부문 수상 영예
- 3월부터 설치 시작해 연말까지 1,500개 대여소에 설치 예정

- 서울시설공단(이사장 조성일, www.sisul.or.kr)은 국제 디자인 공모전 '2020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(Asia Design Prize)'에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거치대가 '그랜드 프라이즈(Grand Prize)'를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.
- '2020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'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. 올해는 산업디자인, 공간·건축, 커뮤니케이션, 소셜 임팩트 등 4개 분야를 공모했다. 전 세계 대학교수, 디자인 디렉터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'심미성', '희소성', '기능성'을 평가해, 전체 응모작의 1%를 '그랜드 프라이즈(Grand Prize)'로 선정한다. 올해는 전 세계 38개국 기관·단체에서 2,340개 작품을 응모한 바 있다.

- 선문대학교와의 협업으로 개발된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거치대는 올해 산업디자인 부문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디자인을 인정받아 ‘그랜드 프라이즈(Grand Prize)’로 선정됐다.

- 따릉이 거치대는 공공자전거를 거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지름 450.5mm 원모양 디자인으로 제작됐다. 특히, 자전거 바퀴를 쉽게 밀어서 거치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.

- 이번에 수상하게 된 따릉이 거치대는 2020년 3월부터 서울시내에 설치된 것으로 연말까지 추가 확충하는 1,500개소의 대여소에 설치된다.

-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“이번 수상은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따릉이 거치대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”며 “앞으로도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민의 생활교통수단으로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〈관련사진〉

